

## [가정축제 Gift 3] “가정, 그 축복의 선물”

하용조 목사 / 2003 / 페이지 수: 3

온누리교회 18년간 사역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온누리교회는 지배 공동체인가?’입니다. 이 말을 좀 더 개방적인 말로 바꾸면 ‘온누리성도는 진정한 지배자인가?’입니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자로 바로서길 축원합니다. 온누리교회의 본질은 예배에 있습니다.

둘째, ‘온누리교회가 진정한 성령공동체인가?’입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 질문을 개인적으로 바꾸면 “나는 성령사역자인가? 성령의 기쁨부음을 받고 사는가?”하는 것입니다.

셋째, ‘온누리교회는 선교공동체인가?’입니다. 복음을 한번도 받지 못한 민족,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는 전도자인가?’를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인가?’하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를 시작한 것은 1990년대였습니다.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 안식년으로 하와이에서 1년을 보내고 서울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령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는 말씀, 사역, 훈련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성령사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방언을 하고, 귀신이 떠나는 것, 예수님의 환상을 보는 것 등 영적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서 성령 대신 말씀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성령사역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둘째는 가정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올 무렵 ‘하나님의 자녀들은(King's Kids) 있는데 왜 하나님의 가정은(King's Family) 없을까?’ 생각하고 몇몇 분들을 불러 가정 사역을 하라고 했습니다. 스태프로 20가정이 모였는데 이들은 가정 사역을 준비하다가 그들 부부 사이의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정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1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에게 훈련을 받고 자기 문제는 치유하고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사역이 시작했을 때 프로그램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순수, 겸손, 진실함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사역과 더불어 가정 사역은 온누리교회에 주신 복이었습니다.

### 가정사역이 절실한 현대

오늘날 현대 사회는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혼자 사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처가 있고 외로운데 가정 사역을 너무 강조하면 혼자 사는 분들에겐 상대적으로 배려가 약해질 수 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자로서는 이 두 관계를 조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시대가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이기에 가정사역이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은 구원

사역과 선교 사역입니다. 그러나 구원과 선교만큼 중요한 것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사역입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소리 없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직자나 장로, 집사, 순장 가정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낼 수 없으니 내면적으로 더 심해집니다. 그들이 부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음에도 교회에 나와 찬송을 부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이라는 포장 아래서 부부의 심각한 갈등을 버려둘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부부 관계를 회복하고 이 문제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해결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능력 없는 위선자가 되고 자기를 속이고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를 만들어 사람들이 훈련을 받도록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사도행전 29장 비전을 우리에게 주면서 30개 비전교회와 2천개 선교지 교회 비전, 1만 순장 비전을 주시며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순장 부부는 가정사역자 부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정사역의 소중함을 깨닫고 온누리교회 모든 순장이 일대일 지도자여야 하고, 가정사역자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순,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이 삽니다.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에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는 것은 마치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 밤 여기 앉아있는 분, 3일 동안 참여한 여러분에게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다른 부부를 치유하는 부부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부부가 이혼하는 부부를 만나 이혼하지 않게 하고 부부싸움하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깨어지는 부부를 치유하는 부부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혼하려는 한 가정을 막을 수 있다면 그 인생에 굉장한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1만 순장 축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뜻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비전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대일 사역자일 뿐 아니라 여러분 부부가 힘을 합해 병들어 가고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이 한 가정을 살리는 단계가 되지 않았어도 그런 부부를 감쌀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순장이 가정 사역자로**

성경적 가정은 세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첫째,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에덴으로 돌아가는 가정입니다. 죄를 짓기 이전 아담과 이브가 만들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 가정의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기 축원합니다. 에덴동산의 회복은 죄가 없는 부부 사이입니다. 우리 부부사이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끄럽고 떳떳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사랑을 깨고 권태기를 재촉하고 서로의 존경을 잃게 합니다.

둘째, 성경적 가정의 비전은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부인 교회 같은 가정입니다. 가정의 이상은 교회 같은 가정이고 교회의 이상은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왔을 때, 가정 같이 느낀다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받는 모든 복을 누리는데 가정의 이상입니다.

셋째, 비전과 미션을 갖는 가정입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눈여겨 볼 부부가 나옵니다. 브

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 이름이고 아굴라는 유대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바울을 만나게 됐는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천막을 함께 만드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 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도 항상 언급하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면 편지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있는 아볼로라는 성경학자를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바울 뒤에서 이렇게 목숨까지 내놓는 부부들, 동역자와 사역자들이 있었기에 사도행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 참으로 아름다운 이상적 부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절망하는 내 친구, 내 이웃, 가족, 친척 중 깨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우리 부부가 저 사람을 한 번 책임지자, 새벽부터 나와 저 친구를 위해 기도하자.’ 결심해서 1년, 2년, 노력한 결과로 그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났다면 세상에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모든 순장님이 가정 사역자로 변하여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부부로 한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비전을 오늘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에덴의 회복되는 가정, 교회 같은 가정, 선교의 꿈을 안고 동역하는 부부로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복으로 이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 출처 : 온누리신문**